

금요 수필

휴가 단상

신문사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가장 더운 중북 무렵에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그동안 신문도 발행하지 않아 모처럼 느긋한 생각이 든다.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았지만, 가벼운 호주머니 사정에 여타를 떠난들 무더위 속에서 고생만 할 것 같았다. 결국 첫날 오전은 여행 대신 기사 한 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전날 일요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독매 마을에서는 주민 70여 명이 모여 주민총회를 열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회의는 저녁 7시가 다 되어 서야 끝났다. 집으로 돌아와 기사를 쓰려했지만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 결국 집 근처 스타벅스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냥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한 시간 남짓 기사를 쓰다 보니 어느덧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 미완성 원고를 저장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늦은 시간 마신 커피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두 시가 넘도록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다. 아침 여섯 시, 출근 준비를 하던 아내가 밥을 먹으라며 깨웠다. 입맛은 없었지만,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밥을 마다할 수는 없었다. 말없이 한 그릇을 비웠다. 돌아보면 그 평범한 아침상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아내의 사랑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았다. 기자가 되기 전 나는 예전에 뉴스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현역 기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 만 호
수필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취재를 잘하려면 먼저 듣고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통스레 깨달았다. 잡이 부족했던 탓인지 뉴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오전 아홉 시였다. 다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다듬었다. 혹시라도 내 기사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지 시청 관계자와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두 시간 넘게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쳐 기사를 완성하고 나니 어느새 점심 시간이었다. 점심식사를 하려고 보니 가스파린지 위에는 아내가 아침에 끓여 놓은 콩나물국이 있었다. 국을 데우고 밥을 달아 조용히 점심을 먹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오전 일을 마치고 들어온 아내가 들어오며 “그냥 두고 가요”라며 말했다. 괜히 서툰 내 설거지가 못마땅해서였는지, 아니면 쉬러는 배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웠다. 노트북 가방과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챙겨 서신도서관으로 향했다. 나에게 최고의 피서지는 도서관이다. 시원한 냉방 아래에서 읽고 싶

은 책을 마음껏 읽고, 신문도 펼쳐보고, 글도 쓸 수 있다. 요즘 도서관에는 나처럼 머리가 회색한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띈다. 아마 그들도 집의 더위를 피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볼펜 아니라 마음까지 식혀주기 때문이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학창 시절 도서관을 조금 더 가까이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았을 것이고,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도 오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도 이제는 후회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값지게 살아가라는 조용한 다짐이 된다. 도서관 창밖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쬓고 있었다. 도서관 인근의 나무에서는 매미들이 웅 웅 울어댔다. 어릴 적처럼 “뽀뽀” 하고 우는 소리가 아니라 긴 숨을 토해내듯 이어지는 울음이었다. 문득 그 소리가 짧은 생을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존자들의 외침처럼 들렸다. 어쩌면 지난 세월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삶을 대신 올려주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내가 벌써 교도관을 퇴직한 지도

어느덧 만 9년이 되어 간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버스회사에서 6년간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다. 그것이 지켜워 버스회사를 그만두고 신문사로 옮겨 2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기자로 살아오면서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취재를 다니느라 원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늘 바쁘게 살아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으며 달려왔다. 하지만 휴가 첫날, 출근할 곳도 없고 마감 시간에 쫓길 일도 없으니 비로소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누군가 더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성실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조금은 천천히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다. 남을 위해 뛰어다니는 삶도 의미 있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나 자신도 아끼고 돌보며 내면의 삶을 충실히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책 한 권을 읽고, 나무 그늘을 바라보고, 아내와 밤 한 끼를 함께하는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배워간다. 휴가는 어디론가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울려부스 휴가를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내 생 각대로 그대로 필는지는 불확실한 미래만큼이나 나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오랜만에 내 삶을 천천히 뒤 돌아다 볼 수 있었던 가장 시원하고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다.

사설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 고민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물론 그린벨트 활용에도 반대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질지 관망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이번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서는 빠졌다. 하지만,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공급지로 적합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 여가·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하도록 한 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 대해서도 견해차

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등의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비 사업으로 31년까지 31만호가 있고, 그게 잘 되면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신규 공급 물량은 영창공원 훼손지 천 호에 그쳤다. 장관과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문제 외에도 서울시와 의견 대립이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 등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방침이다.

AI가 배우는 섬씨 50도 작업장

모래를 녹여 유리병을 만드는 공장은 요즘 같은 무더위에 실내 온도가 50도를 넘어선다. 극한의 환경에서 숙련공들이 해오던 일을 이제 AI가 학습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녹은 유리가 레이저 광선처럼 떨어진다. 기계가 모양을 잡고, 공기를 불어넣자 순식간에 유리병이 만들어진다.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됐지만,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지켜보는 37년 차 숙련공은 아직 식지 않은 유리병의 색깔과 모양만으로 불량품을 가려낸다. 온도를 열미만큼 높일지, 압력을 얼마나 줄지, 품질을 좌우하는 변수를 조절하는 건 결국 숙련공의 몫이다. 제품이 불그스름하면 뜨겁다, 제품이 조금 어두컴컴하면 차갑다. 이런 결 판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 매뉴얼 없이 수십 년 경험으로 터득한 숙련공의 노하우는 세대를 거치며 이어져 왔다. 하지만, 환경을 섬씨 50도가 넘는 열악한 환경 속 다음 세대 숙련공 숫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구인난 속에 이 업체는 장인의 눈썰미를 AI에 학습시키기로 했다. 우선 유리병의 상태와 그에 따른 사람의 판단, 최종 제품의 완성도 등 원인과 결과를 데이터로 바꾸고 비슷한 상황에서 AI가 장인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것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 수정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데이터를 입력하고 문제점을 찾다가 입력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어깨너머로 배우던 숙련공의 감각, 이제 AI가 물려받고 있다.

독자재언

화재 위험 ‘심각단계’ … 모두의 주의가 필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전자기기·냉방기기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20년 8월 5일 15시 기준으로 전국화재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므로써 우리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경고입니다. 여름철 화재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폭염에 따른 전기·

냉방설비 과부하입니다. 장시간 연속 운전은 전기설비에 무리가 가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먼지나 낙엽, 포장재 같은 가연물이 쌓이면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기 주변 1m 이내의 가연물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화재입니다. 창고나 기계실처럼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은 발화 후 신고까지 시간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전주 농수산물시장에서 저녁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통해 초기 감지가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은 절대 금물이며, 에어컨 같은 대형 전자기기는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콘센트 내부 먼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습관이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화재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뜨거운 여름철 화재를 예방합시다. 열대성전주원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금!'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